호남 농업 10년새 어떻게 변했나

농가 83,000 가구 줄고 기업형 축산농은 증가세

10년 전에 비해 호남지역 농가 인구와 경지면적, 작물 재배량은 모두 줄어든 대신 축산농가의 대형화와 기계화로 가축 사육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호남 농업의 어제와 오늘-10년 전과 비교한 호남의 농업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호남권 농가는 34만4천467호로 10년 전에 비해 8만3천165호(19.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만1135호에서 1만2646호로 4.6% 증가했을 뿐 전남은 23만4560호이던 것이 18만5569호로 20.9% 감소했다. 전북과 제주 역시 각각 20.8%, 13.0% 줄었다.

'농도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 농가 감소율(14.2%)보다 6.7%p나 높아 산업화와 고령화로 인한 탈농과 이로 인한 농촌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가 인구수도 10년새 전남 22만명을 비롯, 전북 14만명, 제주 3만명, 광주 700여명 등 호남권에서만 모두 4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율이 무려 31.5%에 달했다.

경지면적은 개간 또는 간척으로 1만3731ha가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과 건물건축, 유휴지 등으로 5만2876ha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만9145ha의 농지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3200ha, 전북이 1만3000ha, 광주가 2700ha, 제주가 119ha 감소했다.

논벼 작물재배면적도 33만1265ha로 10년 전에 비해 3만5986ha(9.8%)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4곳 모두 1.2~8.6%의 감소율을 보였다.

축산농도 농가 감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육우 사육 농가수의 경우 5만2144호로 10년 전에 비해 7만7346호(59.7%)나 감소했다.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업이 잇따르고 조류독감까지 겹치면서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도 55.5%, 73.0%, 98.1%씩 감소했다.

반면 축사 시설 현대화로 대규모 사육농이 늘고,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사육두수는 증가해 10년 전에 비해 한육우는 7.5%, 돼지는 34.2%, 닭은 54.0%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희망근로' 농번기 일손 빼가기 논란 해결

농촌돕기 기동단 뜬다

전남도 1천여명 73개반 투입

희망근로 프로젝트

힘내라! 광주전남

전남도가 농번기에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1천여 명을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으로 운영하는 등 농촌일손 돕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모내기와 보리베기, 마늘·양파수확 등 전남도 내 영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활동중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1만309명 가운데 10%인 1천86명을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73개 기동단으로 나뉘어 오는 11월까지 과실봉지 씌우기, 농작물 파종·수확, 하우스 작업 등 농가 일손을 지원하게 된다.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이 가동되면서 전남도에서는 18만3천ha에 이르는 모내기 작업이 최근 모두 끝났으며, 2만921ha의 보리수확도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또 마늘과 양파 수확도 대상면적 1만9천320ha의 95%가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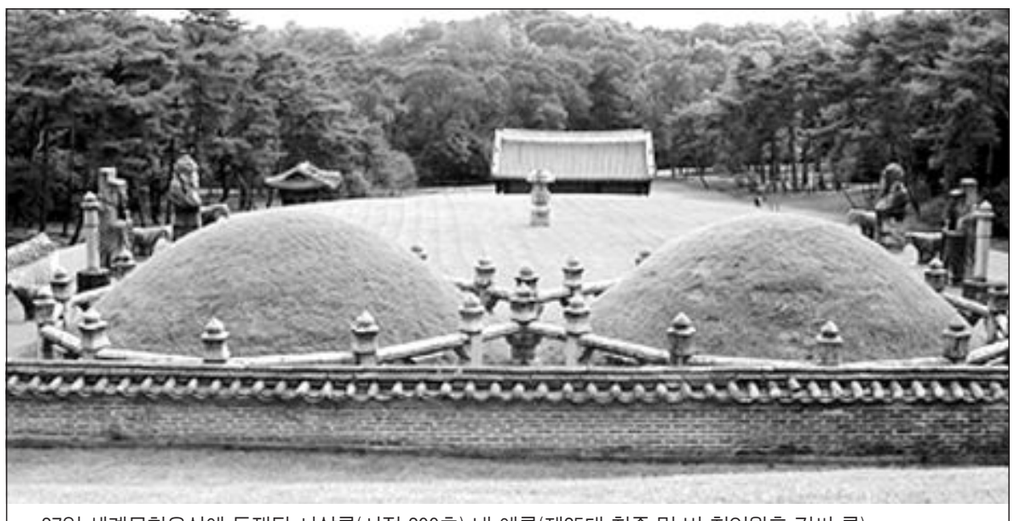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 모내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농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 등을 최대한 활용, 마무리 영농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본답 병해충방제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농번기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전국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7천584명을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으로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61개 기동단으로 나뉘어 오는 11월까지 서울, 부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과실봉지 씌우기, 농작물 파종 · 수확, 하우스 작업 등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수확 시기 등 농·특산물의 작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동단을 투입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7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삼릉(사적 200호) 내 예릉(제25대 철종 및 비 철인왕후 김씨 릉).
〈문화재청 제공〉

조선왕릉 40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됐다

한국에 9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13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7일 스페인 세비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3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조선왕릉'(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40기 전체(북한소재 2기 제외)에 대한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등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 창덕궁, 수원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 그리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에 이어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번 조선왕릉을 포함한 한국의 세계유산 9건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8건이며,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다. 2004년 문화유산에 등재된 북한 및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군을 포함하면 한민족의 세계유산은 모두 10건이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내달 3일부터 … 상추 등은 세척후 재사용 가능

내달 3일부터 음식점들은 원형 그대로의 상추, 깻잎 등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외에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아서는 안된다.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다. 또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부패·변질이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외의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 '파란불'

전남도 추진 … 교과부 사업으로 최종 확정

전남도의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 작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남도는 28일,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추진해 왔던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첨단 해양기술(MT)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사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태평양 해양연구소(POI)와 극동지역 수문기상학연구소(FERHRI) 등 연구기관,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한·러 극동협력 MT-IT 융합기술 국제 공동개발 및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2015년 6월까지 6년간 총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표용 센서, 잠수정과 로봇을 이용한 해양·수중 협업시스템, 수중통신 전자장비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벼 줄무늬 잎마름병 확산

전남도 긴급방제 나서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 매개충인 애멸구 발생이 확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남도가 긴급방제에 나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표본조사에서 잡힌 애멸구가 201마리로 예년과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가 심했던 해남·영광·진도·신안 지역에는 모내기를 마친 논 가운데 약 60%에서 애멸구가 발견됐다.

전남도는 애멸구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벼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해 벼농사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각 시·군에 '벼 애멸구 긴급방제 특별지시'를 통보하고 공동방제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애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논둑 주변에 빠짐없이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한편 친환경농업단지는 전통농법과 생물약제를 활용해 방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젠 수염값 할때도됐으련만 ……